

어려울 때는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친애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

활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소원해지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댁 내외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우회가 연초에 기획했던 여러 행사와 활동이 불발되어 회원님들의 실망이 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서는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안을 연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급선무인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무처는 상, 하반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초에 했어야 할 사우회 정기총회는 사우회 관할 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온라인을 통한 서면총회' 형식으로 무사히 마쳤으며, 창립3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도 회원님들께 잘 전달하여 많은 분들께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등산, 골프, 낚시 등 동호회 활동은 뜻있는 분들끼리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송년모임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가을 중으로 종료되어 연말에 사우회원님들과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본사의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후배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녹아있는 '삶의 흔적 MBC'가 힘겨운 나날을 겪고있는 것을 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보람이었던 MBC에 대해 사우회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는 말 한마디, 박수 한번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회원님들께서 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받으며 얼마나 감동과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우회에 힘을 보태주셨듯이 MBC에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후배들은 더욱 용기를 얻게될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시점에서 사우회원님들께 무한 애정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우회장 차인태 올림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7월 10일 이후)

- 신대근(보도) 100만원
- 박종규(기술) 30만원
- 정광수(기술) 30만원
- 남의균(관리) 20만원
- 박수명(편제) 20만원
- 최대홍(관리) 10만원
- 하영현(관리) 10만원
- 이종열(관리) 10만원
- 이운하(편제) 55만원
- 양윤모(보도) 30만원
- 정경석(관리) 30만원
- 윤홍섭(보도) 20만원
- 백재인(편제) 7만원
- 유흥철(관리) 10만원
- 이용재(관리) 10만원
- 강홍신(기술) 10만원



기술부문 부회장에 김창수 회원 선임



박종규 기술부문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사회는 8월 20일 김창수 회원을

기술부문 부회장으로 보선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김 부회장은 1969년 공채 1기로 MBC에 입사해 2009년 정년퇴직했다. 김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배려와 존중, 함께 걷는 제주

2020 제주 MBC 연중캠페인

회/원/동/정



박종규
(기술, 부회장)

7월 31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원당텃밭'에 차인태 회장과 사우회 임원 등 13명을 초청해 오리백숙과 직접 재배한 과일 등으로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박 부회장은 이날 사우회에 발전기금을 추가 전달함으로써 총 네 차례에 걸쳐 발전기금을 기부한 기록을 남겼다.



박 종(편제)

7월 13일 형님상을 치렀다. 향년 82세로 타계한故박철PD(사진)는 '사랑이 뭐길래', '엄마의 바다' 등 많은 인기 드라마를 연출했던 'MBC드라마의 큰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승문
(편제)

가을 전시회를 목표로 열심히 작품 제작에 몰두해 온 이 화백은 '코로나 사태'로 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실의에 잠겨있다.

이승문 작 <강촌>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재훈(보도)

1986년 보도국 입사. 정치부장, 국제부장, 시사매거진 2580부장, 워싱턴특파원, 논설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 겸임교수.

스포츠 중계 캐스터의 자부심



고창근(ANN)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압권은 단연 “영미, 영미, 영미~~~”로 상징되는 우리 컬링팀이었다. 세상에 ‘컬링’이란 종목이 국민 모두에게 이렇게 대단한 관심과 인기를 누릴 것이라 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현역 시절에 동,하계 올림픽을 현장에서 중계 방송했던 나로서는 그보다 한참 전에 겪었던 ‘무모한’ 컬링중계방송사건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감회를 느꼈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올림픽 때의 일이다. 스포츠는 국력과 비례한다고들 말한다. 특히 하계 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은 이른바 부자나라인 선진국들의 선전과 축제의 상징물로 여겨왔다. 앞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는 그러나 동계올림픽은 선수층, 참여 종목, 시설 등 기반자체가 모두 열악한 상태여서 외견상으로는 ‘사상 최대의 종목과 참가인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의 참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계방송도 우리의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이 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사활(?)을 걸고 방송에 임하다보니 방

송 콘텐츠의 절대적 부족을 타종목으로 편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오늘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컬링’이었다.

컬링 종목은 1932년 미국레이크플레시드, 1988년 캐나다 캘거리,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등 세 번에 걸쳐 시범종목으로 실시되다가 1998년 일본 나가노대회에서 비로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였다. 컬링의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를 살펴보면 2014년 소치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올림픽 본선 진출로 8위,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니, 짧은 역사와 열악한 시설, 투자, 선수층,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하면 대단히 훌륭한 수확이었다. 아무튼 제작진은 여러 논의 끝에 컬링을 방송을 통해 선(?)보이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중계자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를 점찍었다.

순간,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컬링은 ‘얼

음판에서 특이하게 생긴 납작한 돌(스톤)을 빗질로 싹삭 쓸어가는 경기’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동안 걱정과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결정은 나버렸고, ‘그래, 일단 부딪쳐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편한 마음과 함께 오기와 배짱도 생겼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어차피 컬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조금 탈선(?)된 방송을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라는,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컬링연맹이 창립된 게 1994년이니까 당시에는 컬링의 불모지라서 국내에 전문가가 없음은 물론, 알베르빌 현지에서도 어느 누구의 조력이나 자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송 전날, 아침부터 경기장에 나가 종일 여러 나라의 경기를 보면서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 선수의 역할, 경기 진행 및 점수 계산 등 경기방식을 역순逆順으로 꿰어 맞추는 식으로 벼락치기 독학을 했다.

.그리고 나서 경기 당일에는 실수, 실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말을 자제하고, 화면보다 앞서는 설명 대신 화면 동작보다 1~2초 늦게 설명하여 무지와 무식함을 최소화하며 중계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추운



날씨였지만 등줄기엔 땀이 그리도 흐르고 더웠는지. 평창올림픽에서 ‘영미의 컬링’을 중계방송하는 후배 아나운서와 해설자를 보며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경기 현장에서 중계방송에 임할 때 돌변적인 상황이 벌어져 캐스터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컨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의 경우, 개최국들이 자국의 인기 종목이나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동남아의 인기 종목인 세팍타크로 경기가 채택된 것도 그 한 예다. 당시에도 우리에게 생소한 그 경기를 중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나 홀로 현장에서 독학의 고행을 하며 어거지 중계방송에 임했던 장면을 떠올려 본다. 그래서 한때 내 별명이 ‘세팍타크로 캐스터 고’였다.

세월이 한참 지나 이젠 그 때 그 종목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국내에도 폭넓게 알려졌다. 방송되는 경기를 볼 때마다 더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은, 3~40년 전에 턱없이 무모했던 용기를 갖고 어떻게든 충실한 중계방송을 하려 애썼던 내 노력도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었으리라는... ‘혼자만의 자부심’ 아니겠는가 싶다.

경조사항

구순: 안호선(관리)10.25 강병남(업무)10.8 진필호(편제)11.2
팔순: 강영구(보도)10.4 유순옥(대구)10.13 장 용(기술)10.23
 고성광(보도)11.1 임봉주(기술)11.16 이진봉(전주)11.22
 서동식(관리)11.23 하영상(관리)11.25
고희: 정재순(기술)11.1 김주배(편제)11.28
회갑: 김경철(편제)10.10 김성근(기술)11.15
결혼: 이재훈(보도) 아들 9.12 최근진(기술) 딸 9.19
 정복근(편제) 딸 9.26
부음: 윤홍섭(보도) 모친상 7.9 최조남(관리) 시모상 7.26
 정각종(기술) 배우자상 7.20 강동균(편제) 모친상 9.1

연회비

7월: 고영석('20) 김중세('22, 80세 완납) 류제국('11-'20)
 백재인('20, 80세 완납) 오수해('20) 유흥철('20, 80세 완납)
 이재원('20) 조성식('21-'22)
8월: 김대수('20, 80세 완납) 엄기영('21-'23)
 최대흥('21-'24, 80세 완납)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김양배 경기 부천시 양지로20
 박수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385
 안계홍 서울 도봉구 삼양로566
보도: 오수해 서울 강서구 화곡로54길20
관리: 박기병 서울 은평구 응암로30길15
 이종열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466번길3
 최대흥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로9
대구: 김종성 대구 수성구 지범로39길1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인(대구)

7월 11일 별세.
 향년 87세. 1964
 년 대구MBC 입
 사. 보도부장, 방
 송부장, 보도국장, 심의실장 등
 역임. 1980년 퇴직 후 대구시보
 주간, 금호CATV 대표이사를
 지냈다.



장효상(보도)

7월 14일 별세.
 향년 83세. 1964
 년 보도국 입사.
 정치부장, 주미
 특파원, 해설위원, 심의위원
 등 역임. 1989년 퇴직 후 포항
 MBC 사장, 방송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
 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
 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한 발
 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
 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

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
 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
 (mbcsau.com) 또는 사무처(722-
 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사무처 비품 등 교체

사무처는 7월, 본사의 지원을
 받아 에어컨, 데스크탑 5대, 프
 린트와 복사 기능이 합성된 복
 합기 등 비품을 교체했다.

에어컨은 20년, PC와 프린터
 는 각각 10년 이상 사용해서 노
 후화된 것으로 고장이 잦아 사
 무처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

에 새것으로 교체한 것이다.

차인태 회장은 정호식 부사장
 을 통해 본사의 지원에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본사는 출입문에 부착하
 는 팻말도 새롭게 한글로 바꿔
 달아줬다.

끊임없는 생각이 세계최고를 만듭니다.

www.dalee.co.kr

주요인사

본 사/제1공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6번길 78 (정왕동 1258-8) 시화공단 2차 209
 TEL : 031 498 9600 FAX : 031 497 9600
 영업본부/기술연구소 TEL : 080 905 7000

해외법인

Hu Chi Minh / DALEE Vietnam Head Office TEL : 84 28 7300 9600
 SAV8-16.10, The Sun Avenue, No. 28, Mai Chi Tho, An Phu, District 2, HCMC
 TEL : 031 498 9600 FAX : 84 28 3636 3503

Hanoi / DALEE Vietnam Branch Office TEL : 84 24 7300 9600
 Ba Diem 2 Street, Bac Lan, Ba Diem, Hanoi, HCMC / FAX : 84 2837 186413

Vung Tau / DALEE Vietnam Factory TEL : 84 25 4398 9600
 Lot 54, D.02 Street, Chau Duc IP, Suoi Nghe, Chau Duc, Ba Ria - Vung Tau

DALEE CORPORA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Group

생생의 한 가운데서



김 종 길(편제)

■ 그들의 이소離巢

“아빠, 재들 다 나갔나봐. 이제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 그럼 오늘 청소해야겠네”

시집 간 큰 딸이 여름에 아기를 낳은 뒤, ‘혼자서 육아하며 겨울나기 힘들다’고 해서 서울집을 비워둔 채 우리 부부가 기거하는 시골에 와서 육아를 한지 벌써 2년 반이 훌쩍 지났다. 우리 집은 수덕사 가는 도로 옆 2층 슬라브식 건물의 한식당이다. 정면 출입구를 들어서면 중앙에 위치한 주방을 기점으로 우측에 홀이 있고, 좌측 끝이 화장실인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2개의 영업용 방이 있다. 2층은 단체 손님용으로 80평의 넓은 홀과 주방, 화장실이 있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살림방도 필요하고 해서 개조했다. 방 4개, 화장실 2개, 주방, 홈카페, 앞뒤 베란다, 출입구도 1층과 분리해서 2층 전용 출입구를 외부계단을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집에는 우리 부부와 막내 딸, 큰 딸과 사위, 외손주 등이 함께 산다. 방 위치로 보면,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내가 혼자 쓰는 방이 있고 반대 방향에 안방이 있다. 3층 옥탑방에는 막내딸과 슈나우저 4마리, 고양이가 1마리, 2층을 지키는 말티즈 3마리와 푸들 1마리가 살고 있다. 1층 뒷마당에는 닥스훈트 2마리, 건물 주변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초병 진돗개 2마리, 식당 입구 출입문 옆에는 사료와 물, 생선을 무한정 향유하는 길냥이 열룩이와 이웃 냥이들 까지 모두 우리 가족이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봄철만 되면 어김없이 월세 한 푼 안내고 무단 입주하는 박새부부가 있다. 2층 주방 가스렌지 환풍구 내부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잘 모르겠더니 이제는 푸득거리거나 재잘대면 제법 큰 소리가 난다. 박새가 머무는 기간은 4월 말에서 5월 중순 경인데, 이 기간에는 주방의 가스렌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환풍구를 통해서 뜨거운 가스열기가 올라가면 박새 일가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해서다. 아기를 키우는 큰 딸은 젖병을 비롯한 아기 용품들을 가스렌지를 이용해 삶아서 소독해야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커피포트에 끓인 뜨거운 물로 대신한다. 뒤쪽 베란다는 빨래를 널고 걷을 때만 출입하므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외벽 환풍구로 드나드는 그들의 출입을 본적이 없다. 사실 박새인지 동고비인지도 불분명하다.

5월 중순이 지나 그들이 떠난 뒤, 환풍구에 손을 집어넣어 이소한 집을 꺼낸 뒤 청소기로 마무리한다. 작년에는 이미 죽은 아기 새와 깨어나지 못한 하얀 알이 2개나 있었는데, 올해는 한 개만 남아 있다. 그 작은 부리로 집을 짓느라 얼마나 많이 물어 날랐는지, 부드러운 이끼와 따뜻한 털이 내 손 가득 세웅큼이나 뒹다. 우리 집 진돗개가 털갈이 한 것을 물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새집의 제일 윗부분은 그 털로 마무리 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한 지붕 아래의 동거를 끝낸 박새가족들. 자유롭게 가스렌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주방에 새들은 정겨운 지저귀음을 산란하고 떠났다. 내년 봄까지 그들의 지저귀음과 날개짓을 그리며 기꺼이 후드를 비워두려다. 그들의 찬란한 귀환을 그리며 가스불이 시퍼렇게 눈을 치켜뜨고 있다. 백세시대, 육십 중반의 나는 몇 번의 이소를 더 준비해야 할까?

■ 복순이

8월 5일 밤 12시 25분, 자다가뇨기를 느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낮에는 물폭탄이었지만 다행히 비는 그쳤고 뒤쪽 개울의 울부짖음만 요란했다. 건물 오른쪽 2층 가장자리에 위치한 내 방 창밖에는 커다란 느티나무와 맞닿아 놓여진

나무 계단이 2층 출입구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 계단 아래에는 백구 ‘월남이’(진돗개 수컷)가 산다. 비가 쏟아질 때에는 집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밤새 주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녀석이다. 왕복 2차선 국도와 맞닿아 있는 우리 식당 앞마당 겸 주차장은 지나가는 차량들이 잠시 정차하여 용무를 보거나, 차량끼리 만나는 악속 지점 또는 빈번한 U턴 장소로 활용되며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안 여러 해수욕장으로 통하는 길목이다. 서산, 해미, 태안 쪽의 서해안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워낙 많지만 우리 식당 앞 ‘수덕사로’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도 휴가철에는 꼬리를 문다.

20여 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우리집은 늘 왁자지껄하다. 오늘 밤에는 뒷마당의 닥스훈트(평강이, 온달이) 2마리가 유독 끊임없이 짖어댄다. 선잠을 깬 상태로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창밖을 내려다 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2마리였다! 백구 2마리가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찾아 셔터를 눌렀다. 어두운 밤이지만 앞마당 도로 LED 가로등 불빛이 형체를 분간할 정도는 되었다. 싸우지 않고 어울리는 것을 보니 작은 것은 암컷인것 같았다.

아침에 보니 작은 강아지는 뒤 개울가의 밤나무 아래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엎드려 있었다. 낮 동안은 조그만 소리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급하게 개울을 따라 쌓은 비좁은 축대길로 피신한다. 그러면 또 뒷마당의 닥스훈트와 개울 건너편의 ‘태안이’(진돗개 수컷)가 합세해서 짖어대고, 다시 밤나무 아래로 되돌아 오기를 반복했다. 곧 자기 집으로 되돌아 가기를 기대했는데 장대비를 온종일 맞고서도 월남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다 흰색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거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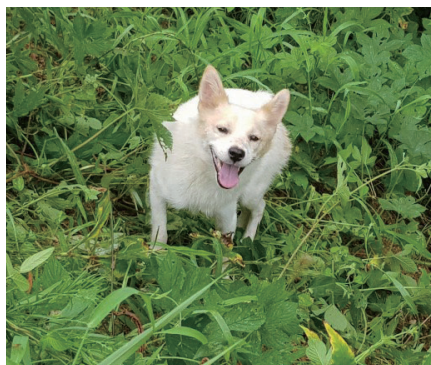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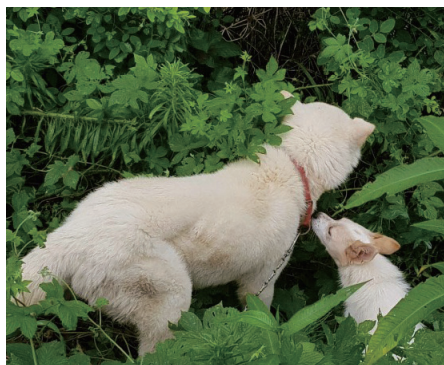
성 운전자가 내리면 부리나케 다가갔다가 이내 밤나무 아래로 되돌아 오기를 반복했다.

이튿날 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재 집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아내의 권유에 우의를 입고 호미며 낫같은 잡다한 기구들을 넣어 두었던 작은 강아지 집을 비워서 밤나무 아래로 옮겨놓고 사료와 물을 준비해줬다. 아침에 창밖을 보니 강아지는 밤새 그 세찬 비를 다 맞으며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물론 사료도 입에 대지 않았다.

3일째 밤,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1층 식당 홀 창에서 바로 보이는 2층 계단 아래 월남이 집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놀랍게도 월남이 등에 가로로 엎드려서 죽은듯이 잠든 강아지가 보였다. 세찬 빗줄기를 피해 함께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안도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막내가 지어준 이름 ‘복순이’는 긴 다리와 예쁜 얼굴에 꼬리가 없고 마른 체형인데, 웰시코기나 치와와 종과도 닮았다. 그렇게 우리집에 머문지 벌써 한 달이다. 그 사이 경계를 많이 풀고 사료와 간식도 잘 먹으며 이름을 부르면 내게 다가와 납작 엎드린다. 쓰다듬고 만져도 될만큼 친해져서 몸에 붙은 진드기를 다 제거해 주었다. 킁킁대고 엎드리며 갇은 재롱을 다 부린다. 아내와 막내는 돼지 등뼈며 닭 가슴살 간식등을 챙겨주고 심장사상충 약도 먹였다.

되돌아 갈 집을 잃었는지? 아니면 뉴스에서 보았던 휴가철에 버려진 유기견인지? 한 달이 된 지금까지 복순이를 찾는 주인이나 전단지를 보지 못했다. 흰 차량? 여성 운전자? 8월 굵은 장맛비와 함께 와서 새로운 가족이 된 복순이의 애교가 애처롭다. 빨리 주인이 와서 데려가면 좋으련만, 시간은 흐르고 오가던 차량들도 잠이 든 수덕사로 성일산채에는 아직 잠들지 못하는 복순이가 있다. 꼬리가 잘려 애통한 뒷태! 볼수록 예뻐서 더욱 슬픈 우리 복순이가 애타게 주인을 기다린다.

꼭, 꼭, 꼭 와주시기를, 버린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며 웃는 복순이를 꼬옥 안아주는 그런 재희의 순간을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김승월칼럼

약사藥師 그리고 목사牧師 김영한

김승월
(편제·이사)

“MBC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어. 제가 약사藥師를 하리라고는”

내가 할 말을 그가 먼저 했다. 각종 약이 빼곡한 진열장 앞에 흰 가운 입고 선 모습이 아무리 봐도 눈에 설다. 올해 66세의 김영한(관리)회원. 7호선 면목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10평 남짓한 ‘시온약국’ 약사다. 종로5가 대형 약국에서 일하다 8년전 이 곳에 개업했다.

MBC 다닐 때 ‘달리기 좀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물었다. 요즘도 뛰는지. “지난 일요일에는 20킬로 뛰었어요, 팔당 갔다 왔지요. 요즘도 일주일에 서너 번, 10킬로씩 달립니다.” 2014년에는 회갑기념으로 조선일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무릎을 만져보니 돌기둥처럼 단단하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했다. ‘햇빛, 호흡, 잠’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피부암 걸리지 않을 정도로’ 햇살 쬔며 맑은 공기 마시며 걷거나 달리기 하면 좋단다.

“마늘 먹어요.” ‘어떤 영양제 복용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리 답했다. 오메가3나 루테인 또는 처음 들어보는 영양제로 답해 줄줄 알았다. 생마늘로 먹으면 속이 쓰려서 십 분쯤 삶아 매운맛을 가시게 한 뒤 먹는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먹거나, 꿀에 재어 먹기도 한다. “의사들도 아로마민은 많이 먹어요. 마늘의 알리신(Allicin)이 주성분이거든요.”



김영한 약사

김 회원은 1981년 보도국 카메라 기자로 입사, 스포츠국을 거쳐 자료실에서 근무했다. 사서들 틈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자료 정리보다 직접 자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을 돌았다.

사라져가는 한국의 축제인 동제洞祭와 안사인(1928~1990)의 제주도 오방굿 같은 자료를 ENG카메라에 담아냈다. 외국에 보관 중인 한국 관련 자료도 발굴했다. 수교 직전의 舊소련에 직접 들어가서 중국 관련 자료실에 있던 윤봉길의사 홍구공원 의거 상황 동영상 구해왔다. 맨땅에 헤딩한 덕에 MBC가 특종 보도했다.

최승희의 아리랑을 찾으러 일본을 뒤풀기도 했다. 그러던 중 IMF 사태를 맞았다. 야간에 다니던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던 해였다. 1998년 명퇴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 처음엔 의료선교를 꿈꿨다. 치과 의사를 하려고 필리핀 라쉬움치과대학(LPU)에 진학했다가 방향을 틀어 약사에 도전했고, 2007년에는 국내 약사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약사 김영한이 약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 격주로 영등포 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교회인 ‘마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교회는 3층 건물 맨 위층에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 건물 밖에도, 예배당 입구에도 간판은 커녕 십자가조차 걸리지 않았다.

건물주 눈치 보느라 무엇 하나 달 수 없다. 노숙자교회라 하면 세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 110

만원. 김 목사를 따라 간 일요일 아침, 스무 평 남짓한 공간에 40여명의 신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 속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84년 입사한 이원용 전 PD다. ‘뽀뽀’, ‘우정의 무대’ 같은 TV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그가 마태교회 담임목사다. 2000년 MBC를 사직하고 목회를 하다 2011년 이곳에 자리 잡았다. 교회 오는 분들은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에서 머무는 노숙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다.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 드린다. 노숙자 몇 분은 아예 여기서 산다. 이 좁은 공간이 성전이자, 식당이자 거실이며 침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않는다. 알음알음 이어진 분들이 돕고 있다. 한 장로님은 매달 쌀 20포대를 대주고,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 약품을 지원해주고, 어떤 빵집에서는 빵을 보태준다. 김치나 밀반찬 주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원용 목사가 ‘끌개’를 끌고 가서 실어온다.

“아무나 못해 이 일. 돈 있는 사람은 못해. 아까워하면 못해. 돈 생기는 대로 다 써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킨 거 같애.” 김영한 목사는 이원용목사와 노숙자교회가 잘 맞는다고 했다. 무료로 밥 나눠준다고 성도들이 모이는 건 아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노숙자교회도 있다고 했다.

김영한 목사가 마태교회에 합류한 것은 2012년. 십여 년 소식 없이 지내던 이원용목사의 전화를 받고 인사차 들렀다가 마음이 움직였다. 설교하던 교회와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리로 옮겼다. MBC신우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고 같이 전도도 다녔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졌다. “성격으로 보나 코드로 보나 서로 많이 다릅니다. 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같습니다.”



(왼쪽부터) 김영한목사, 김석산 목사, 이원용 담임목사

김영한 목사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출신 김석산(90)목사와 교대로 수요일 저녁예배와 일요일 아침예배를 인도한다. 김석산 목사는 정년 무렵부터 20여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었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웃과 나눴다. 이원용 담임목사도, 김석산 목사도 김영한 목사도 모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방송사, 신문사의 인터뷰는 거절했다. 이름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교회는 끝난다고 믿고 있다. 그저 가난한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노숙자를 섬긴다.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한 분들께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라고 격려해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다 보면 일 안 하던 사람이 일 나가기도 해요. 노숙자 잡지 ‘빅이슈’를 팔아서 돈 모아 전세 얻어 나간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 문제는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녜요. 속도가 나지 않아요. 한 순간에 세상이 밝아질 수는 없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줘야 합니다.”

인터뷰를 몇 번이나 사양했던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자 문득 사우회원들에게 한 말씀하고 싶다고 한다. “광동제약의 공진단 같은 약은 몇 백만원 해요. 비싼 약 사실 때는 저에게 연락주세요. 원가를 알려드릴 테니 구입할 때 참고하세요.”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고 싶어하는 약사이자 목사 김영한 회원. ‘말씀 같은 약으로, 약 같은 말씀으로’ 이웃의 몸과 영혼에 도움 주며 산다.



마태교회 예배

카메라와 함께 한 34년



서태경(보도)

■ 36년 전. 문화방송 정동 사옥에 입사했다. 정확히 1984년 1월 1일이다.

근처에 ‘난다랑’과 ‘나드리’ 카페가 있었고, ‘항실다방’과 파스타를 잘하는 ‘이파리아노’도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별로 드나들지 못했다. 카메라 기자로 입사해 속칭 ‘사스마와리’를 마치자마자 이듬해부터 ‘카메라출동’에 합류했다. 당시 MBC뉴스의 시청률을 견인하던 ‘카메라출동’은 ‘백문이 불여일견’, TV를 통한 현장 고발 뉴스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이틀에 내 얼굴이 나가는 바람에 가족들이 자랑스러워(?) 했지만 다칠까 봐 걱정도 많이 하셨다. 실제로 생사를 오간 사고도 몇 건 있었는데 사고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 ‘마이카 붐’이 일면서 차 사고도 급격하게 늘었다. 차량이 물에 빠져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도 여럿 있었다. 카메라출동팀은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실험을 하기로 했다. 겁 없던 20대 중반의 나는 그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안전요원과 함께 차에 탔고, 차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져 물이 가득 찬 풀장에 던져졌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했고, 특히 수영에 아주 능숙했기에 자신이 있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엔진 무게 때문에 차는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며 쓸렸고, 먼지와 엔진의 기름때들이 쏟아져 나와 앞이 안보였다. 천정은 수압으로 찌그러져 머리를 눌렀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순식간에 차안에 물이 차올랐다. 준비한 휴대용 산소 탱크는 안전요원이 독차지하고 내게 넘겨주질 않았다. 그도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이라. 불과 2분. 찰라가 영겁으로 느껴지는 공포의 순간이었다. 발버둥 치며 차 밖으로 나가려 안간힘을 쓰는데, 차 밖에서 촬영하는 선배는 한 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촬영에만 열중이었다. 얼마나 야속하던지...촬영하던 선배가 나중에 말했다. “야~ 연기 참 리얼하게 하는구나 생각했지”

■ 불도 있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탈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철거 예정인 마포 2층집을 통째 빌렸다. 소방차와 소방관도 대기시켰다. 불붙은 석유콘로를 넘어뜨려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켜버렸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은 민첩하게 밖으로 탈출했지만, 불길의 진행을 촬영하던 나는 기회를 놓쳐 그만 불길 속에 갇혀버렸다. 나갈 수가 없었다. 바닥을 기다시피 2층으로 올라가니 거기다 화염에 휩싸였다. 무조건 뛰어 내렸다. 본체와 담벼락 사이에서 대기하던 오디오 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았다. 뉴스 편집부에서 퇴직한 조수원 씨가 바로 생명의 은인이다.

■ 결코 잊을 수 없는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 때.

우리 팀(강성주, 황성희, 이진숙, 서태경)은 바그다드로 급파됐다. 그곳은 매 순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전쟁터였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국에서 온 기자들도 하나 둘 집을 썼고, 마침내 우리나라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도 철수했다. 우리 일행은 ‘철수냐 잔류냐’를 4명이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전쟁터에서도 민주적인 MBC 기자들이라니) 무기명 투표 결과는 3:1, 잔류하기로 했다. 며칠 뒤 미국 ABC 사운드 맨(50대 한국계 미국인)이 ‘아마도 오늘밤 미국이 공격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폭격이 시작됐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폭죽인 듯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보며 카메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그림을 보니 영상이 흔들렸다. 내가 떨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보안군의 총부리에 밀려 지하 병커로 내려가 선잠을 자고 아침에 거리로 나갔다. 바그다드 시내 곳곳이 폭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로 폐허가 됐고, 우리는 스케치한 영상을 한국에 송출하기 위해 바그다드 방송국으로 갔지만 거기엔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CNN으로 달려가 ‘10분만이라도 위성 송출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어렵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그다드를 빠져 나가기로 했다.

외국기자들 몇 명과 함께 뱅을 빌렸다. 국경으로 가기 전에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끝도 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 등을 몰래 찍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 후배 황성희 씨가 군인들 지프 차에 실려 끌려갔다. 우리는 무기력했고 사색이 된 채 공포에 떨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로 만감이 교차할 즈음,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지프 차가 황성희 씨를 싣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끌려가는 도중 주머니 속에 있는 신분증명서가 생각났어요. 그걸 꺼내 보여줬더니..” 신분증은 이라크를 떠날 때 필요할 것 같아 이라크 공보관에게 돈을 주고 미리 사둔 것이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며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한 치 앞일을 누가 알 수 있으랴. 마지막으로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을 넘으며 연합군의 포격 장면을 몰래 찍었는데 이번에는 운전수가 국경 수비대에 고자질해버렸다. 장비를 몽땅 뺏기고 우리는 다시 억류됐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다른 테이프와 바꿔치기 해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장비도 되찾았다. 나중에 들으니 우리와 친했던 ABC 취재팀에 있던 그 한국계 미국인은 계단에서 굴러 돌아가셨다고 했다. 돈을 벌어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살려고 보수가 많은 종군기자를 지원했노라고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서울로 돌아 온 1년 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후의 이라크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바그다드로 갔다. 바그다드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 본 티그리스 강의 붉은 노을은 슬프게 아름다웠다. 인류 문명이 탄생한 곳, 그 기름진 옥토에 전쟁의 포화가 터지고 수천 년의 역사는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데, 코냑 한잔을 마시며 고향에 두고 온 뉘 지난 아들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직도 그 강물은 흐르고 전쟁 또한 끝나지 않았고....

■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1999년 지구의 종말’이라는 예언이 정말 맞을까 했던 1997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최영사가 집 앞에서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 마피아’가 그랬다, ‘북한 소행이다’ 설

왕설래했다. 즉시 출장 준비를 했지만 비자가 늦어 일본을 경유하게 됐다. 때문에 SBS보다 한발이 아니라 하루가 늦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다 치워지고 경찰의 삼엄한 통제로 인터뷰도 어려웠다. 어쨌든 송출은 해야 하기에 방송국으로 갔더니 SBS는 이미 송출 중이었다. 영상도 취재도 비교 불가였다. 현장 취재에서 이렇게 밀리면 정말 뼈아프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열심히 머리를 굴려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묵고 있던 북한 근로자들의 숙소로 갔다. 숙소는 요새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열려진 출입구를 발견하고 무작정 들어갔다. 짹짹 주변 촬영을 하다가 들켰다. 태연하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북한 근로자와 관련이 있단 소문이 돌더라. 억울함을 풀어 주려 당신들을 찾아 온 거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달려들어 카메라를 빼앗더니 숙소의 문을 잠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들은 녹화 테이프를 확인하려 했지만, 압수 당하기 직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실 우리 아버지도 함흥 출신인데 1.4후퇴 때 내려와 늘 고향을 그리워하신다”고 혈연과 지연을 강조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덕분이었다. 그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남북 간에 소통이 어려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현실이다.

■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네 번에 걸쳐 13년간 ‘시사매거진 2580’ 취재. 파리 특파원 시절 두 번의 코소보전쟁 취재와 김종오 선배와 함께 한 터키 대지진 취재 등 나름대로 생사를 넘나들었던 취재 현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문세의 노래 ‘광화문 연가’를 들으며 아련한 추억에 젖는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지만

언덕 밑 정동 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그렇다. 나의 추억과 청춘은 언제까지나 내 가슴과 그 곳에 남아있으므로.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천국도 지옥도 누비는 취재 전사戰士

-MBC 도쿄 특파원 생활 6년 반이 남긴 것-



추성춘(보도)

■ 특별한 발상을 해치는 '신의 소리'

특파원으로 현지에 부임하고 나면 본사 데스크의 목소리가 갑자기 '신의 소리'처럼 들린다. 국제적인 취재경쟁 전선에서 맨 앞에 나선 F15전투기 조종사처럼 긴장과 적막감 속에 하루 25시간을 뛰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파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기자와 카메라맨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프로 중에 프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특파원이라는 타이틀을 받고나면 우선 인생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인내'와 '양보'정신을 철저히 배우는 일이다.

본사 데스크는 기자의 강렬한 개성보다는 템플레이에 철저하고 온갖 주문에 순응하며, 본사의 감성을 잘 잡아주는 특파원이 써먹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특파원의 입장에서 본사 데스크의 주문이 가끔은 '신의 황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데스크의 주문으로 잠이 모자라는 것은 특파원의 직업병처럼 되고 있다. 그래서 술 못마시는 특파원이 없으며 주량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른바 '국내감각'에 시각을 맞추다가 일찍 지쳐버린 특파원도 적지 않다.

특파원이 도쿄, 파리, 뉴욕,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지낼 수 있는 '특별한 발상'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 특파원 수난시대

언론사에 갓 입사한 기자에게 특파원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상상이 나타날까.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현지 TV나 신문을 여유있게 읽어내리면서 가끔은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아쉽지만 요즘은 이처럼 우아한 특파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특히 특파원을 둘러싼 전자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 틈은 커녕, 뉴스를 쫓아 1초를 아끼면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 특히 서울과의 시차는 특파원의 피를 말리는 '악의 새'다.

서울과 뉴욕, 워싱턴은 밤낮이 거꾸로 돌고 있다. 서울의 아침은 뉴욕의 밤이다. 그런가 하면 도쿄와 서울은 너무도 가까워 숨소리도 들릴 지경이라서 서울 데스크는 도쿄를 마치 안방에서 건넌방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불러댄다. 자주 불러줘서 고마울 때도 있지만, TV에 자주 등장하는 특파원의 얼굴이 가끔은 일그러져 보이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한달 전 뉴스도 보통으로 방송하던 우리 TV뉴스가 '바로 지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온 결과 이제 TV뉴스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TNT시대'라고나 할까? 'Today's News Today' 즉 오늘 일어난 뉴스는 이 지구 어느 구석에서 발생했건 바로 그날 영상뉴스로 안방에 전달된다. ENG카메라와 위성중계 장치까지 갖춰 기동력을 강화함으로써 당일로 안방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1957년, 지상으로 부터 야구공 크기의 물체가 쏘아 올려진 이후 우주 공간에는 여러 형태의 인공위성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통신위성은 대서양 상에 6개, 인도양 상에 3개, 태평양 상에 2

개 등 모두 11개가 떠있다. 이들 통신위성은 각각 TV회선 채널 2개, 전화 1만 2천회선을 중계할 수 있다. 특파원 수난시대를 재촉하게 된 배경에 바로 이와같은 통신위성의 등장이다.

■ 전파 특파원 시대

방송기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전파를 이용해 뉴스를 멀리 그리고 넓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위성중계 리포트는 일상적인 일이 됐다. 최첨단 기술의 응용으로 방송기술의 혁신이 가속되고 있는 요즘, 방송기자는 기술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한 기술을 파악,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기술직 동료와의 동지적 결합을 통한 팀워크 확보에 실패할 경우 유능한 전파기자로 성장할 수 없다. 전파 특파원의 기본 정신은 철저한 현장주의와 당사자주의다.

이를 통해 신선도가 높은 생정보를 뽑아내야 한다. 또한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보고 느낀 것을 말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취재는 잘 하나 전달은 잘못하는' 반쪽 기자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방송기자의 기본이기도 하다. 전파 특파원은 또 적극적으로 뉴스를 환기시킬 수 있는 연출의 힘을 길러야 한다. 최근 정보의 과잉은 정보에 대한 식상과 포식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뉴스의 세일즈포인트를 발굴,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영상연출이야말로 TV뉴스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다. 취재를 잘 하고 멋진 기사원고를 쓰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TV적 영상뉴스'를 잘 만드는 기자가 유능한 방송기자다.

■ 특파원은 무엇을 말해야 하나

영국 BBC의 방송기자 교과서에는 "사실은 신성하나 코멘트는 자유다"(Fact is holy, but comment is free)라고 적혀 있

다. 미국의 방송 저널리스트들은 자주 "사실은 가장 훌륭한 코멘트다"(Fact is the best comment)라는 말을 인용한다. 사실을 신성시하는 BBC의 경우는 개성이 없더라도 가능한 색을 칠하지 않는 사실보도를 중요시하는데 비해 미국의 TV저널리즘은 '사실은 수없이 많으며 이 가운데서 사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코멘트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다. 어느 쪽이 우리 실정에 더 잘 맞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라 말할 수 없다.

특파원은 활동무대가 해외의 낯선 나라인만큼 '특파원다운 특파원 정신'을 우선 갖춰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사실에 치우친 나머지 뉴스를 마구잡이로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는 부분적으로 무책임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특파원 정신'을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정보를 선택하는 시각과 사상의 기본은 일반 리포터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 천국일 수도 지옥일 수도 있는 '취재전사' 생활

만 6년 반 동안의 도쿄특파원 생활은 방송기자로서 심신수양의 기간이기도 했다. 역부족으로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자책감으로 잠을 못 이룬 적도 많았다. 특파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항상 긴장과 고독으로 넘친다. 이런 가운데 반성도 있었지만 후회 없는 특파원 생활이 되도록 노력했다. 특파원 생활은 하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다면 짧지않은 도쿄 특파원 생활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을 것이다. 이 시간에도 격렬한 국제 취재전선에서 건강을 돌아볼 틈도 없이 25시간을 뛰고 있는 MBC특파원들.

이들에게 '취재전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줘도 과장을 것이다.

-1987년 MBC가이드에서 발췌-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임성기(편제)

MBC를 생각할 때면 어떤 낯익은 풍경을 되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뭔가 서먹한 기분도 함께 느낀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일터였지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밀려나야 했던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일까.

그런 이유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더 근본적인 의식들이 내 안에 잠재해 있음을 나는 안다. 헤어지지 못했던 스트레스의 연속, 5,16정권 말기의 방송정책과의 정신적 갈등, 나 자신의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 등. 나는 아직도 두려움으로 그 시절을 회상한다.

엄청난 방송의 영향력 안에서 재량권도 많았던 내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관여했던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공과를 남겼을까. 그 많은 특집이나 행사, 캠페인들을 시청자들은 어떤 눈과 귀로 받아들였을까 등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방송인으로서의 나는 행운아였다. 프로듀서 생활 9년, 그 중에서 6년을 쇼담당으로 보냈다.

중학교 다닐 때 음악부에 있었고, 대학 시절엔 학교신문에 재즈에 대한 글을 실을 정도로 심취했던 연유도 있지만, 내가 쇼PD로 정착한 것은 드라마가 '작가의 작품'이라면 쇼는 '연출자의 작품'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KBS TV가 생기고 1년 후쯤 입사했는데 이대섭, 차재영, 진필호 씨 등이 있었고 얼마 후 민용기 씨가 왔다. 내가 맡았던 프로그램은 '이 밤을 즐겁게', 'KBS그랜드 쇼', '고요한 밤에' 등이다. '고요한 밤에'는 제목과 포맷을 내가 구상해서 편성담당자를 졸라서 만든 것으로 '최초의 심야쇼'라고 할 수 있다.

제작비 9천원, 1인 출연료 2천5백원. 피아노를 기본으로 솔로 악기 연주자 한 사람과 가수 한 사람 등 세 사람으로 밤 10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됐다. 세트 없이 조명과 소품만으로 넓은 공간을 이용한 '작은 리사이틀' 같은 것이었다.

당시 접촉이 많았던 음악인으로 는 지휘자 임원식 씨의 형인 임근식 씨와 박선길 씨가 피아노를 맡았고, 엠포미 씨가 클라리넷, 최상룡 씨가 트럼펫, KBS TV 악단장으로 노래도 잘했던 송민영 씨가 트럼본을 연주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 막 귀국한 길옥윤 씨, 서울대 음대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성조 씨도 잇을 수 없다.

내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한 뒤 전업을 하고 잊혀진 가수들 중 아깝게 생각되는 사람은 상송을 부르겠다고 여수에서 상경해 프랑수아도 열심히 공부했던 '손 산'과, '옥아', '고무신' 등을 작사, 작곡해서 노래한 미국에서 온 히피풍의 가수 한대수가 있었다.

고집스럽게 재즈만을 노래한 박성연 양은 한때 신촌에서 '야누스'라는 유일한 재즈음악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연주회도 정기적으로 했던 재즈 보급의 히로인이었고, 섹스폰의 달인 이정식 씨 또한 재즈에 미쳐있던 위대한 음악인이었지만 30대의 젊은 나이로 아깝게 요절했다. 나는 그들의 음악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듀서로서 보람과 영광이었다.

TBC TV로 옮긴 뒤에는 'OB그랜드 쇼', '패티 김 쇼', '한밤의 멜로디' 등을 제작했다. '꿈길에의 초대'에서는 송창식과 윤형주가 '트윈폴리오'로 데뷔했고, 조영남, 이장희, 김세환 등이 단골로 출연했다.

그들은 '통기타 세대'를 이끈 실력 있고 스마트한 새로운 음악 집단이었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패티 김'은 그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많은 PD들이 같이 일하기를 꺼렸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던 어느 라디오PD는 고심 끝에 사표를 냈다는 소문도 들렸다. 나는 그런 패티와 2년간 생방송을 했다. 그녀도 나도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참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개성은 강하지만 내 주장에 잘 따라줬고 나는 레퍼토리는 물론, 머리 모양, 옷 입는 것까지 개입했다. 그녀는 당시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를 무척 입고 싶어 했는데 나는 절대로 못 입게 했다. 패티는 그 후에도 나를 가리켜 '임 고집'이라고 부르며 웃곤 했다.

MBC TV 개국과 함께 MBC로 옮겨 와서도 얼마 동안 심야 쇼 등을 연출했다. 나는 골든 타임의 와이드 쇼보다는 심야의 30분짜리 쇼에 더 애착을 가졌고 그것으로 만족했다. 어떻게 보면 쇼 프로듀서로서 나는 지나치게 자기 취향만을 고집한 '폭 좁은 방송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0여년 전만 해도 TV시청률 조사에 나타난 쇼나 코미디는 오락프로의 중심을 이루면서 랭킹 베스트 10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던 것이 근래는 상위 랭킹에서 거의 빠져버린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의 변화나 대형 가수가 출현하지 않은 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다. 돌이켜 보면, 쇼 프로에 활기가 없어진 것은 VTR이 활성화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생방송이 갖는 활기와 생동감, 긴장감과 함께 해프닝성이 사라지고 지나치게 계산된 연출의 차가움 만이 넘친다.

가수의 시대에서 작곡가의 시대로의 전환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수많은 신인들이 몇 곡의 히트곡을 낸 다음에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마는 '스타의 부재'는 가수들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인기를 관리하고 성장시켜 주는 프로모터의 영세성에도 문제가 있고, 아직도 관계기관이나 매스컴들의 대중음악에 대한 경시 풍조 또한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쇼 프로를 연출하는 프로듀서들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다.

MBC로 와서 심야 쇼를 얼마 동안 하다가 드라마담당 부장을 시작으로 관리자의 길로 들어섰다. 드라마부장 다음에는 편성부장이 됐고 이어 TV제작국장, 편성국장이 됐다. 편성국장이 되면서 라디오 편성에 관여했고, 그쪽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은 나의 방송생활을 훨씬 풍부하게 하는 좋은 계기였다.

내가 계획서를 썼던 프로그램으

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수사반장', '장학퀴즈'가 있고, 편성국장 때 시작한 행사로는 '서울국제가요제', '대학 가요제', 라디오 행사인 '대학생 작품 경연대회', '네트워크 작품 경연대회' 등이 있다.

프로듀서로 일하는 동안에는 창조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너무 고달팠다는 느낌도 든다.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긴장 속에 생방송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잠도 잘 오지 않았다. 가장 여유있는 마음가짐과 기분 좋은 상태로 일했던 기간은 부장으로 일할 때였다. 10명 내외의 직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맡은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협조가 잘 됐고, 당시의 국장들도 대부분의 일들을 위임해줘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장 시절은 외로웠다. 직원들과의 접촉도 자연히 멀어졌고 윗사람이나 외부로부터의 지시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모시고 지냈던 분들이나 동료 중에는 훌륭한 인격과 학식을 갖춘 존경할만한 분들이 있어서 많은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다.

요즘 집에서 TV를 보면 이름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중요한 크레딧에 등장하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그들이 폭풍처럼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일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국민윤리나 의식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만큼 나는 그들이 철저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MBC에 있으면서 나는 낯시꾼이 됐고 아직도 그때의 동료들과 가끔 동행하고 있다. 아직도 나에게 이런저런 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옛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옛 직장 MBC가 내게 준 선물 중의 하나다. 서로들 몸이 불편해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연락이라도 종종 하면서 남은 삶을 즐겁게 살고 싶다.

MBC는 영원한 나의 고향이다.

-1983년 'MBC가이드'에서 발췌-